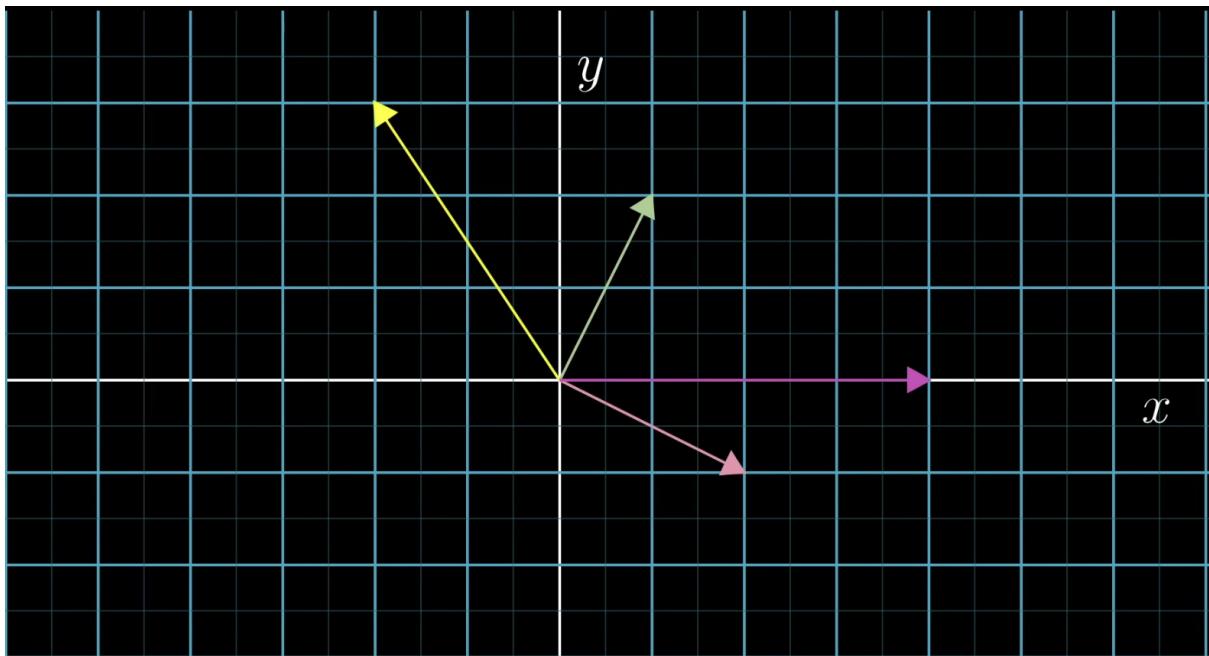


Basic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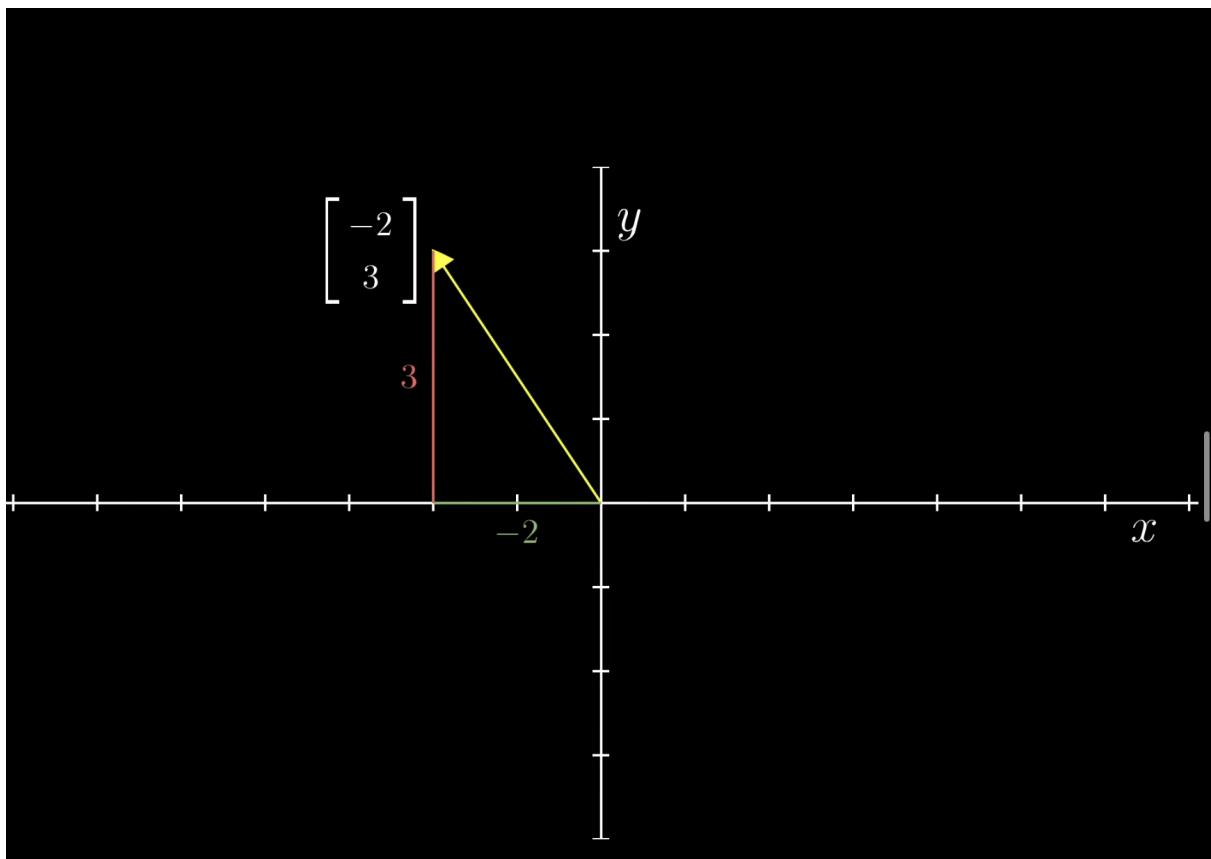
벡터

선형대수의 기본은 벡터, 그럼 벡터는 무엇인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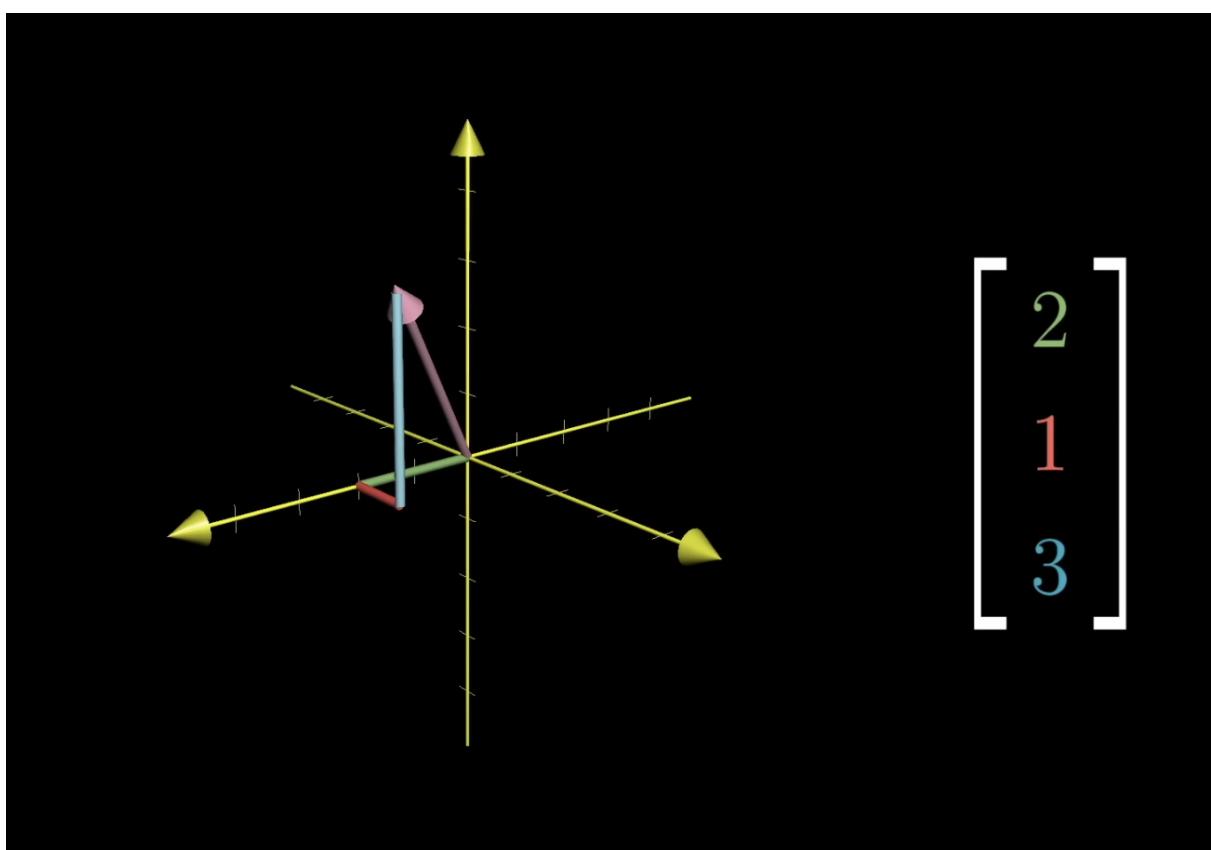
1. 물리학 : 공간의 화살표. 벡터는 {길이, 방향} 을 가진다. 2D, 3D 어디든 존재 할 수 있다.
2. 컴퓨터 : 순차적 숫자의 리스트. (== 리스트)
3. 수학 : 복잡해서 생략



일반적으로 벡터는 XY 좌표계 위의 (0,0)을 꼬리로 하는 화살표를 상상하는게 좋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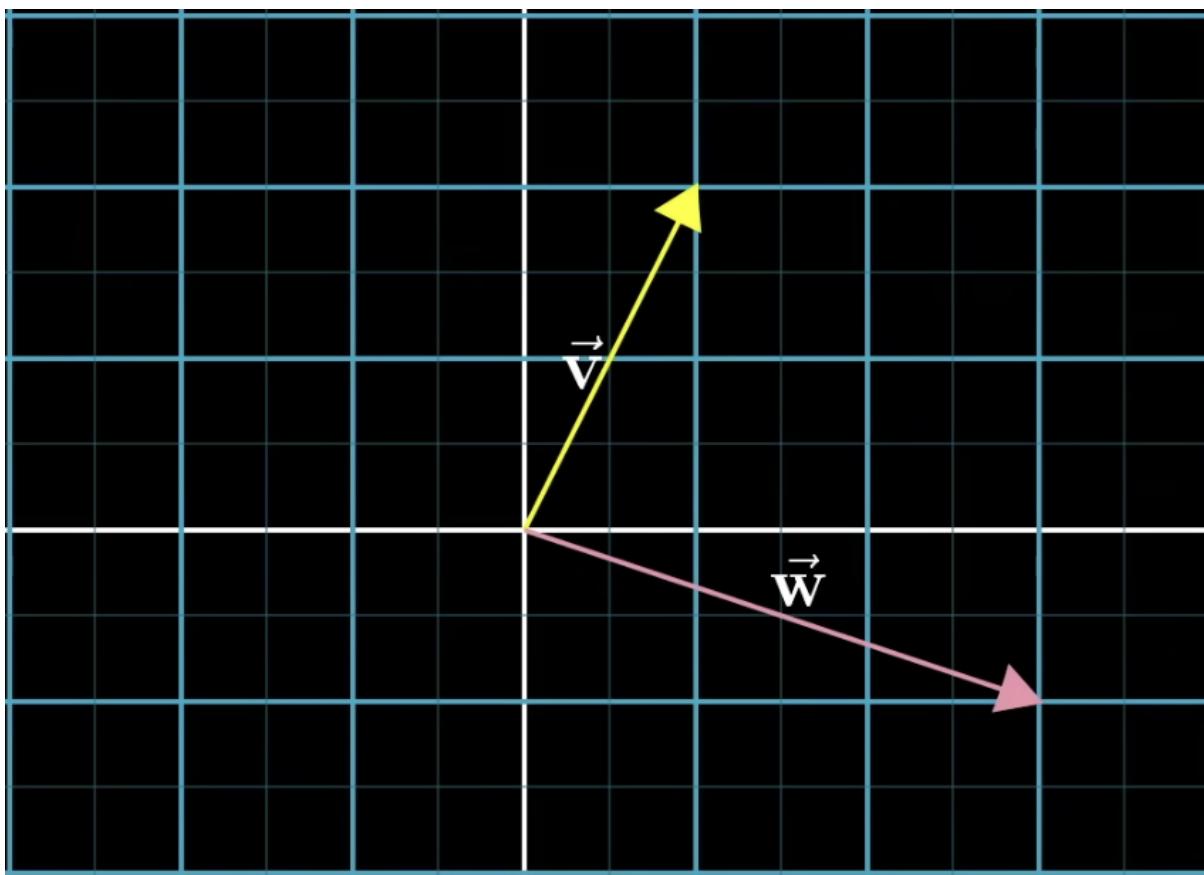


2차원의 벡터의 경우 위와 같이 축 하나에 대응하는 숫자를 가진 이중 숫자쌍으로 나타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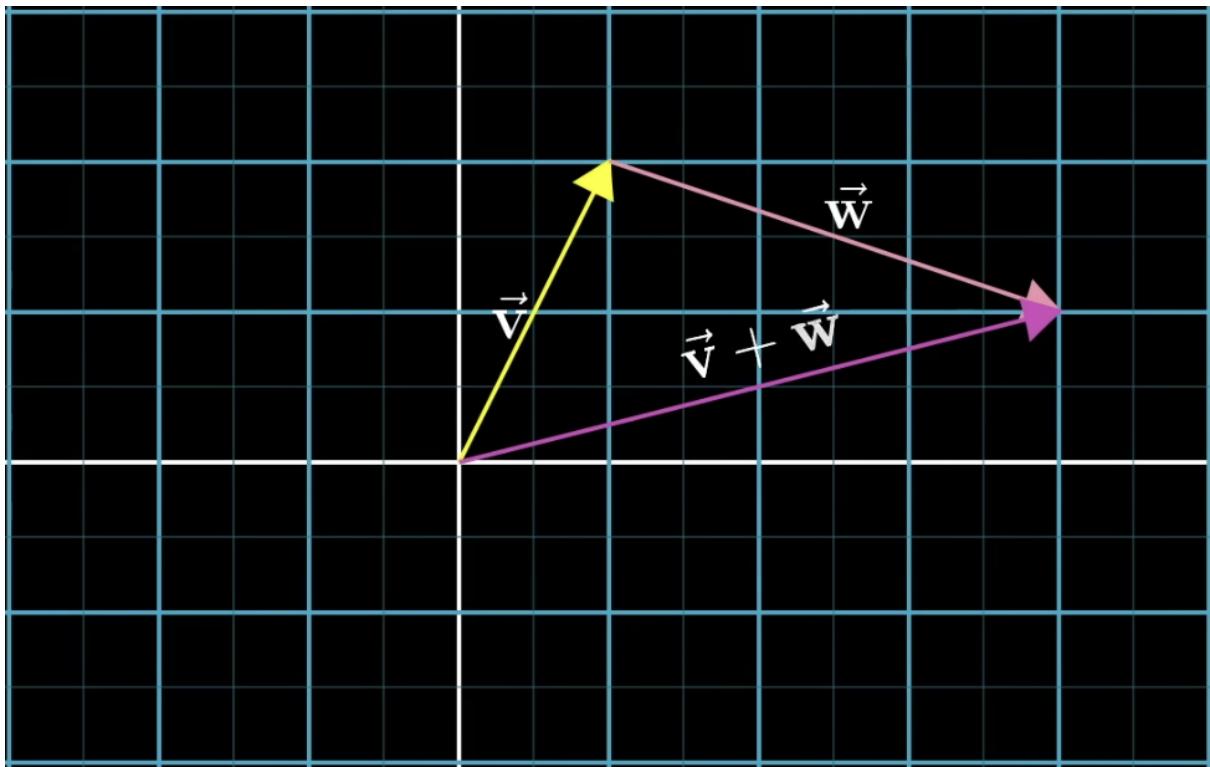


같은 방식으로 3차원의 경우 위와 같이 3중 숫자 쌍이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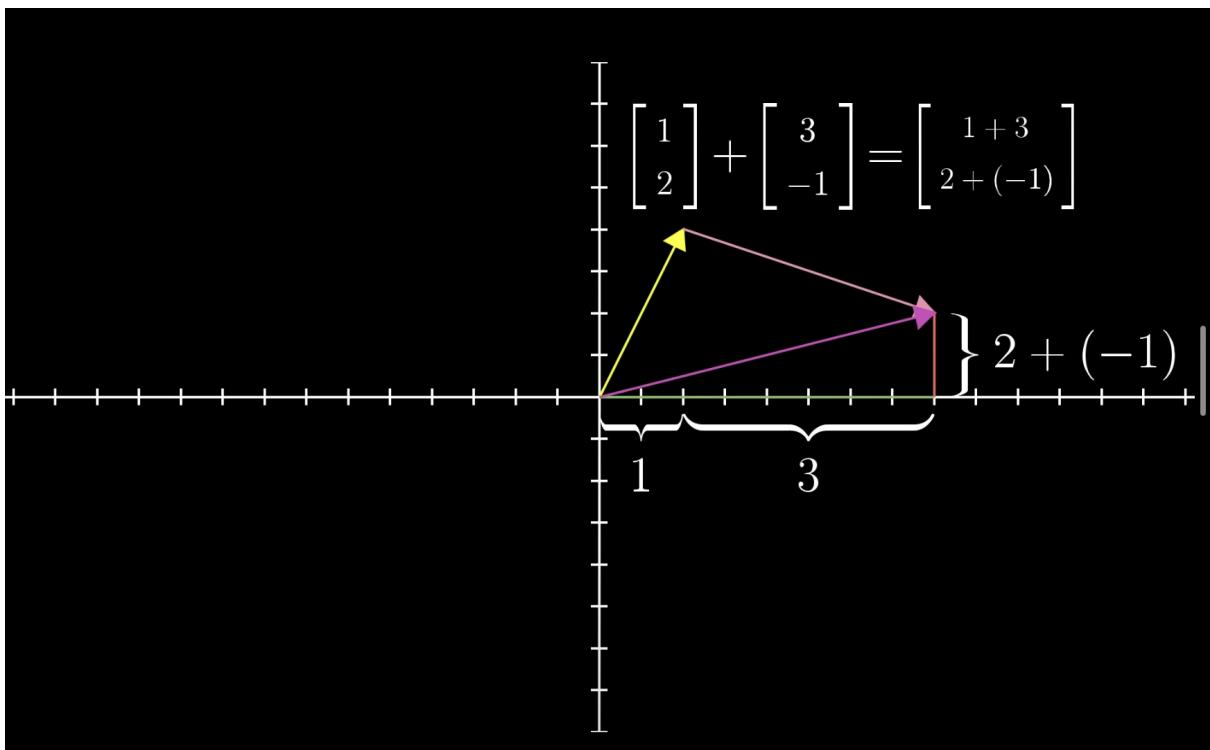
벡터의 합



두 벡터의 합은 첫번째 벡터의 머리 부분에 두번째 벡터의 꼬리를 위치시킨 후 다시 첫번째 벡터의 꼬리 부분에서 두번째 벡터의 머리를 가리키는 새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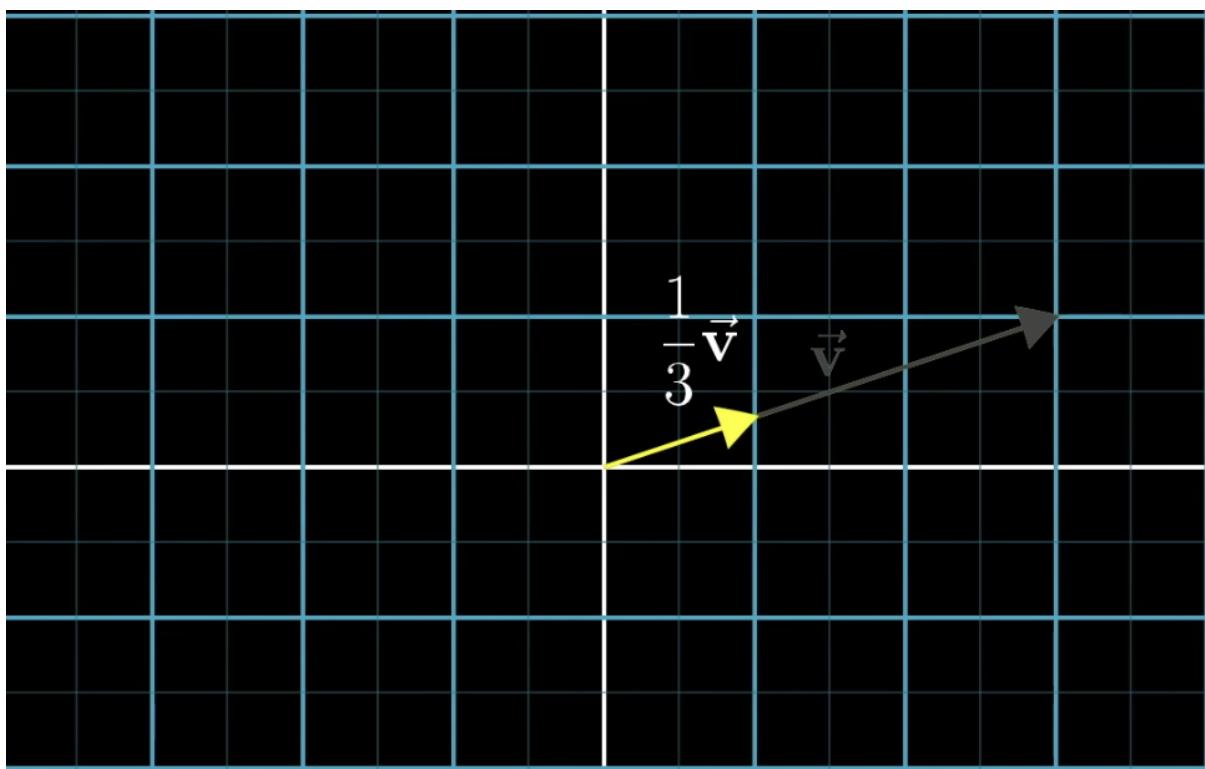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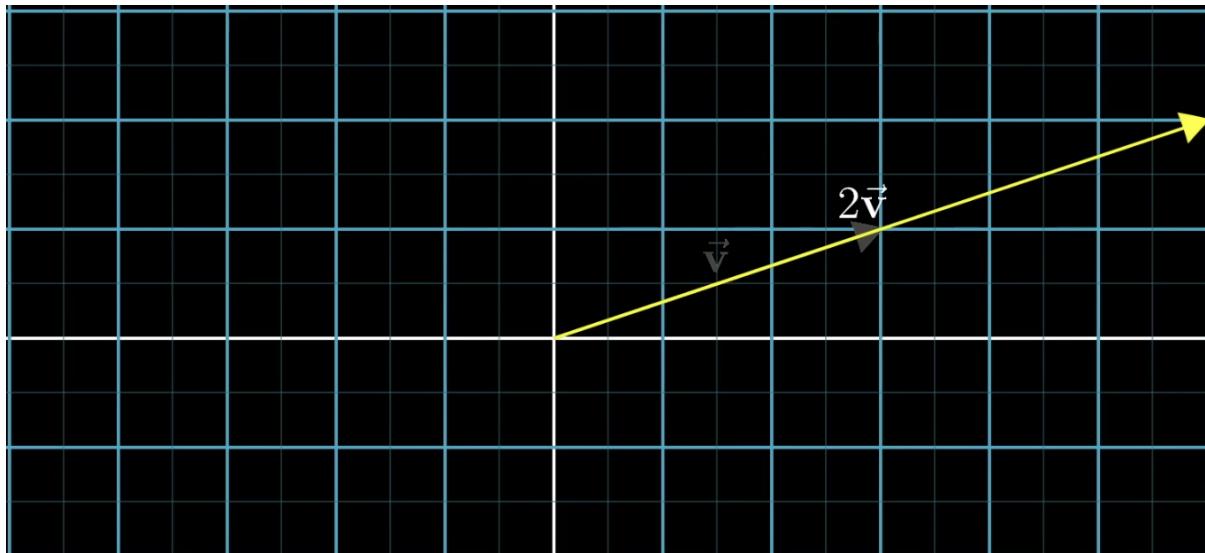
위와 같이 나타난다. 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일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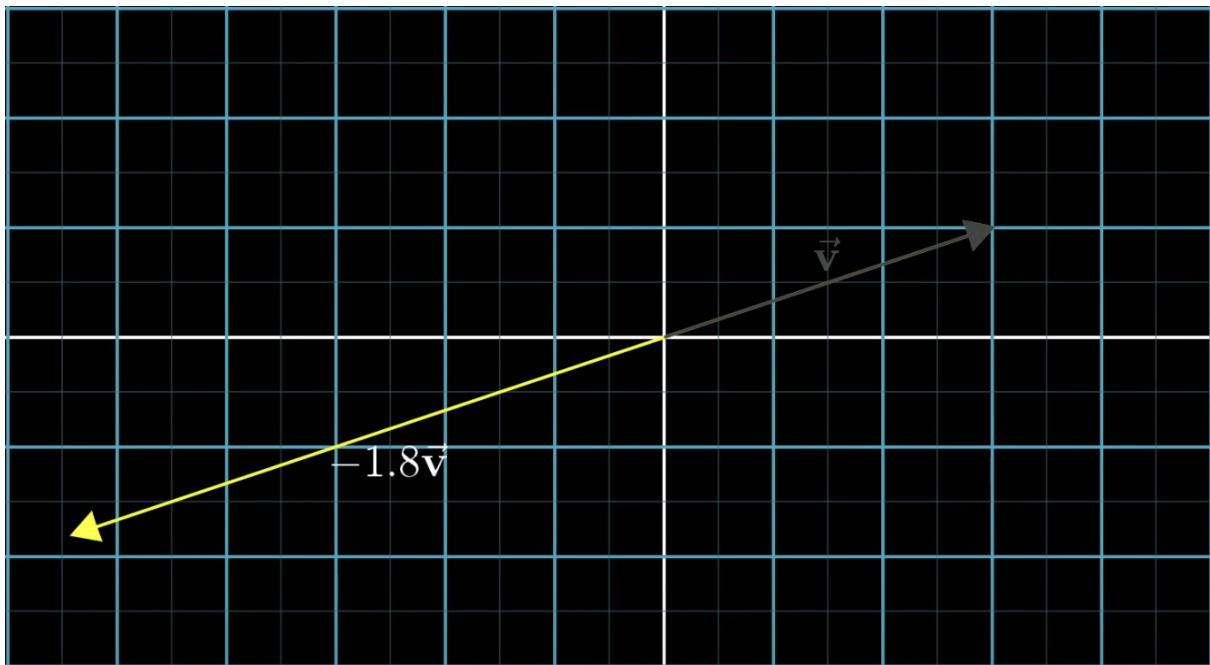


벡터를 하나의 공간 상에서 특정한 {길이, 방향}을 가진 움직임-단계라고 생각을 해보자. 그래서 첫번째 벡터를 따라 이동한 후 두번째 벡터로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위 그림과 같이 이동한 셈이 되는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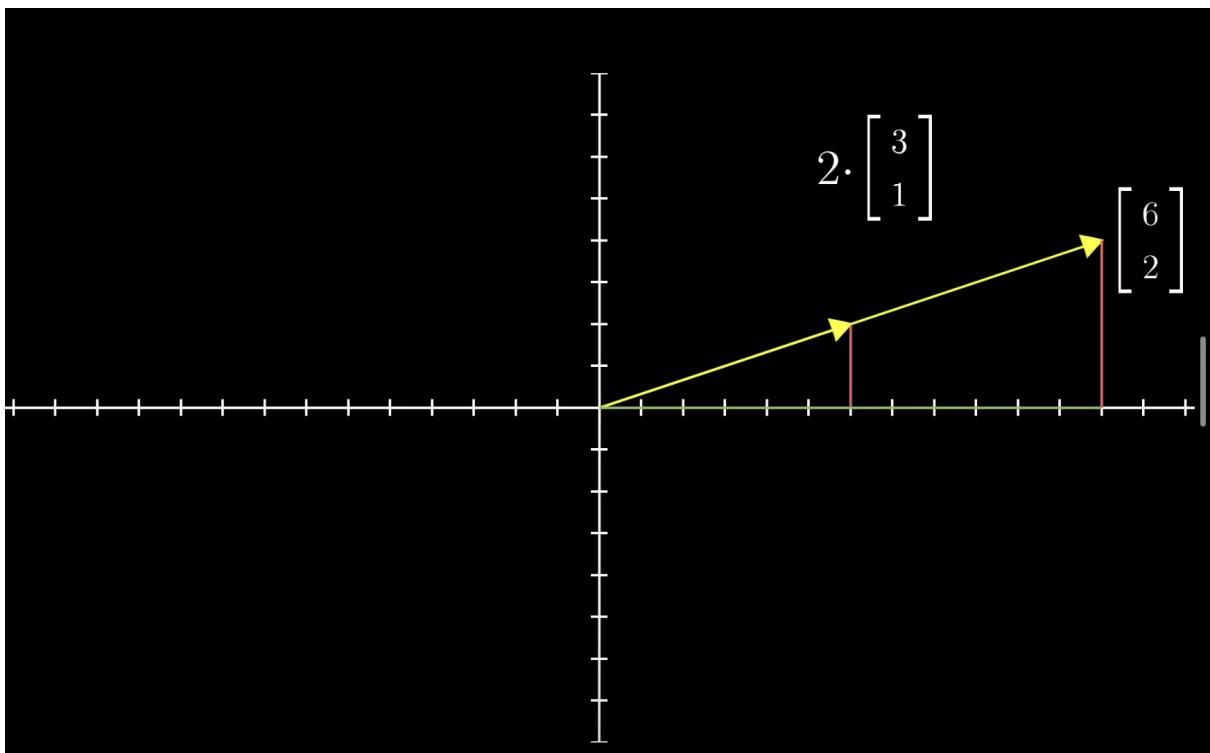
벡터의 곱

벡터의 곱은 벡터의 길이를 늘이거나(줄이거나), 방향을 뒤집는 것을 의미한다. 이는 다른 말로 스케일링(Scaling)이라고도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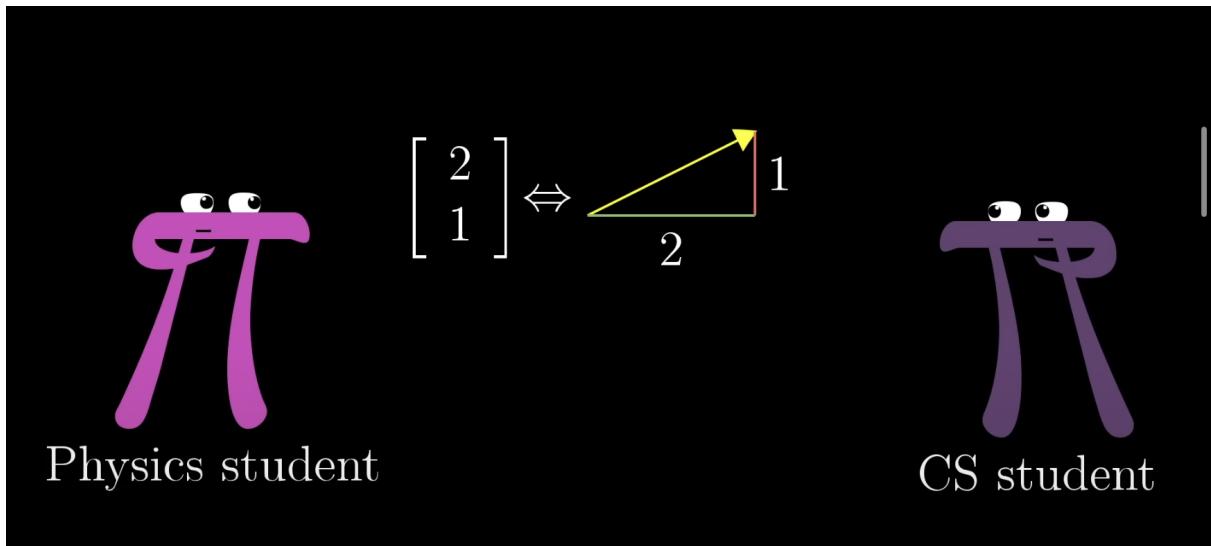




이 때 벡터의 스케일링에 사용하는 숫자를 스칼라(scalar)라고 한다. 쉽게 숫자(number)로 생각해도 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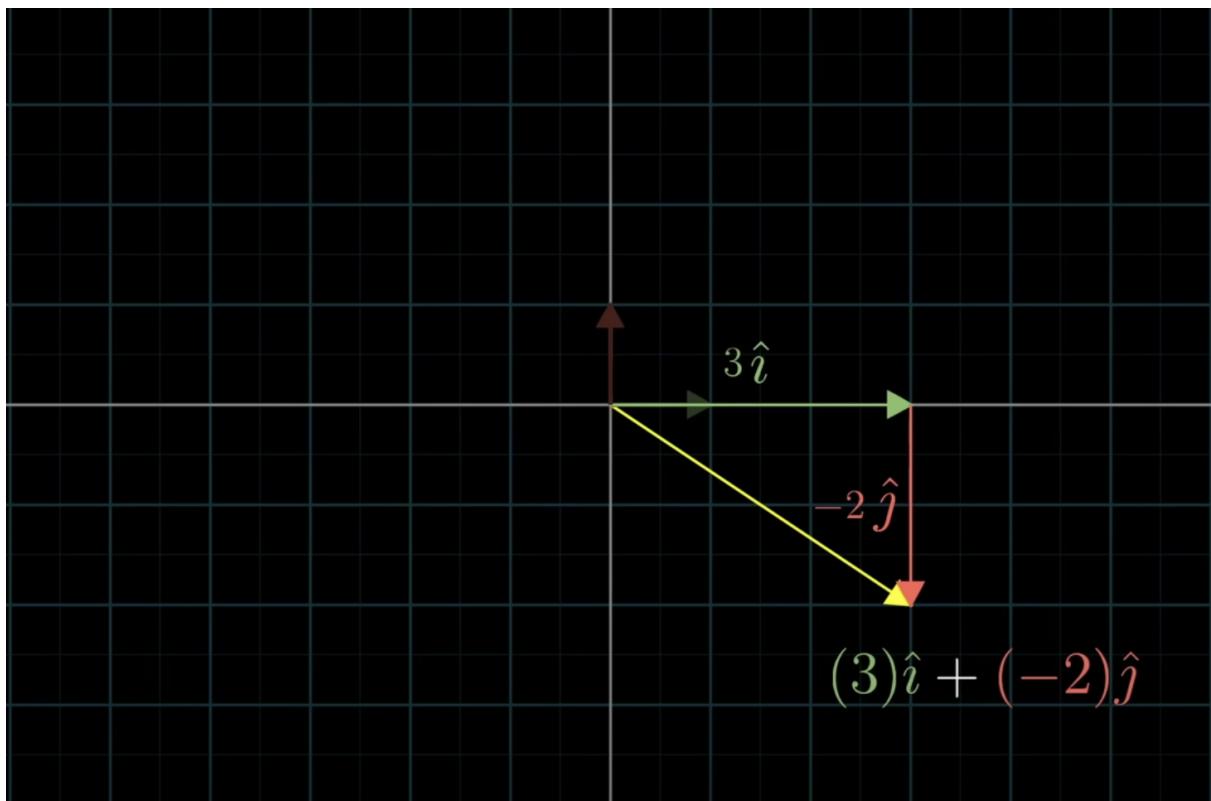
벡터에 스칼라를 곱한다는 것은 벡터의 각 원소에 스칼라를 곱하는 것과 같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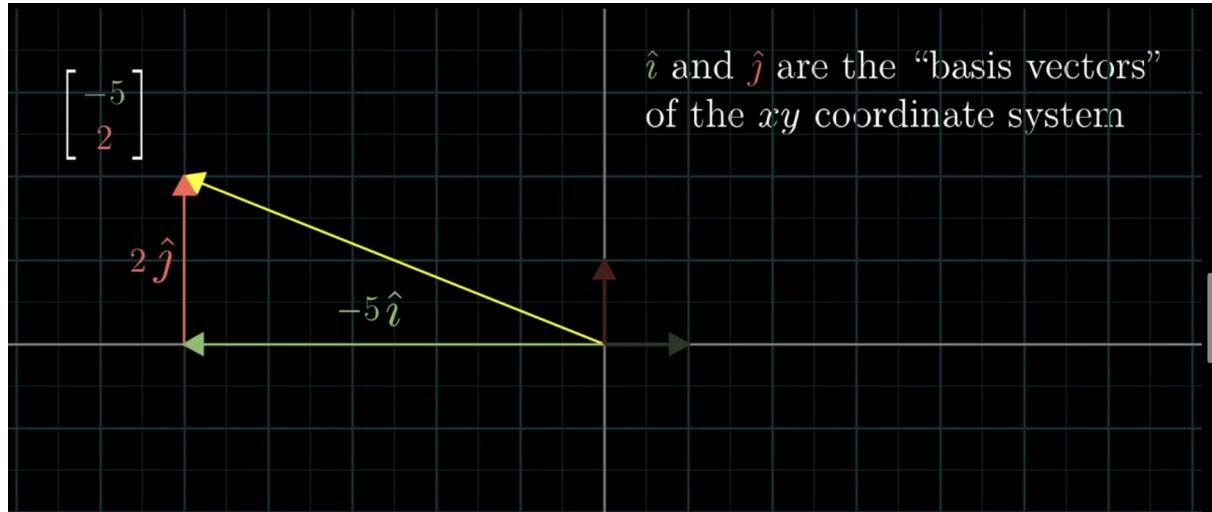
물리학의 벡터의 정의와 컴퓨터과학의 벡터의 정의는 이렇게 상호 변환이 가능한 개념이다.
선형대수는 벡터합과 스칼라곱으로 이루어진다.

기저(Basi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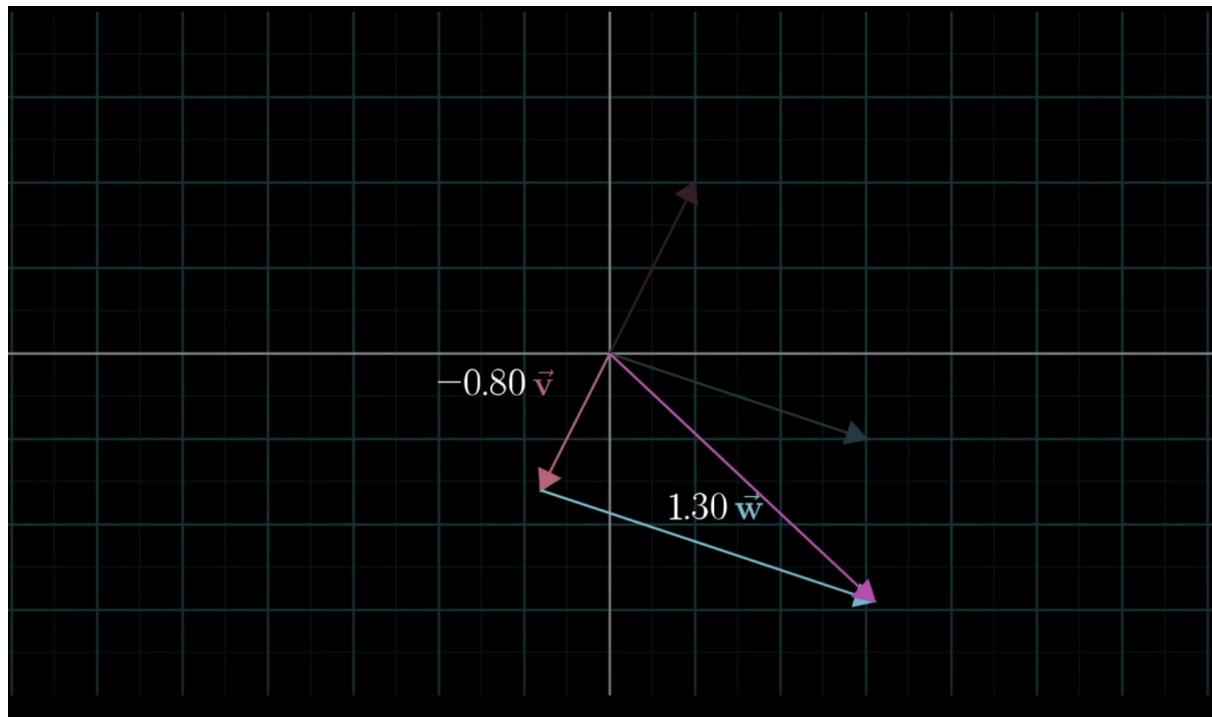
벡터의 각 좌표값(coordinate)을 각각의 축에 대한 unit vector라고도 하며 *hat*이라고도 하는데, 이 단위벡터를 스칼라로 생각해 볼 수 있다.



벡터를 x축 유닛벡터(\hat{i} -hat)를 스케일링 하는 스칼라와 y축 유닛벡터(\hat{j} -hat)을 스케일링 하는 스칼라로 구성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. 그러면 $[3, -2]$ 라는 벡터는 두 유닛벡터를 x축으로 3, y축으로 -2 스케일링한 두 벡터의 합으로 생각 할 수 있다. 즉 벡터를 스케일링한 벡터들의 합으로 생각하는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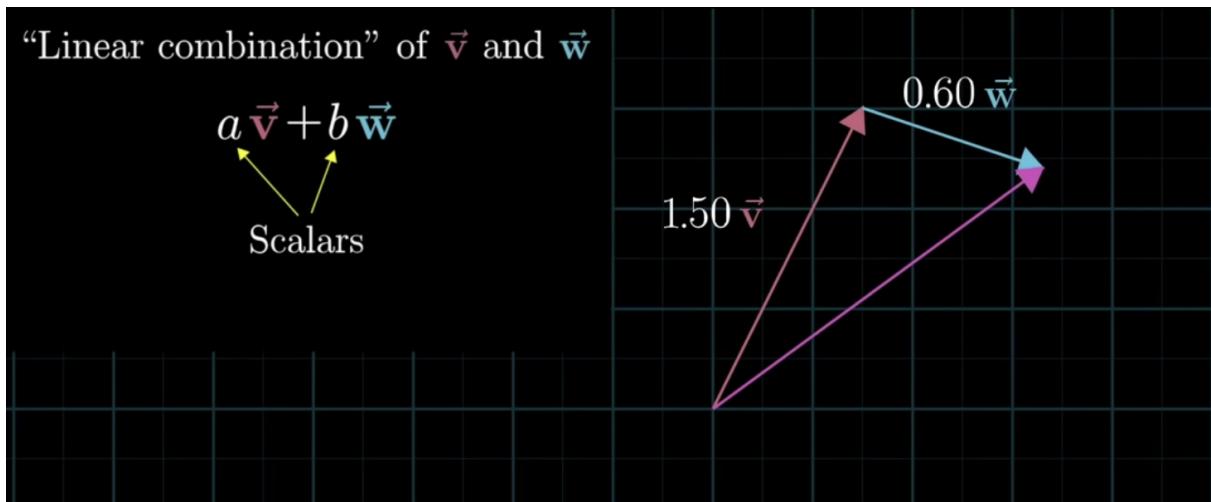


이 i -hat, j -hat 두 벡터들을 기저(basis)라고 한다. 이 기저 벡터들은 각각의 좌표 축의 스칼라(좌표값)이 스케일링하는 대상이된다.



두 기저벡터를 구성(framing)으로 XY 2차원 좌표 축에서 새로운 좌표계를 만들 수 있다. 수치를 벡터로 표현할 때 암묵적으로 어떠한 기저 벡터들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.

선형 결합(Linear Combination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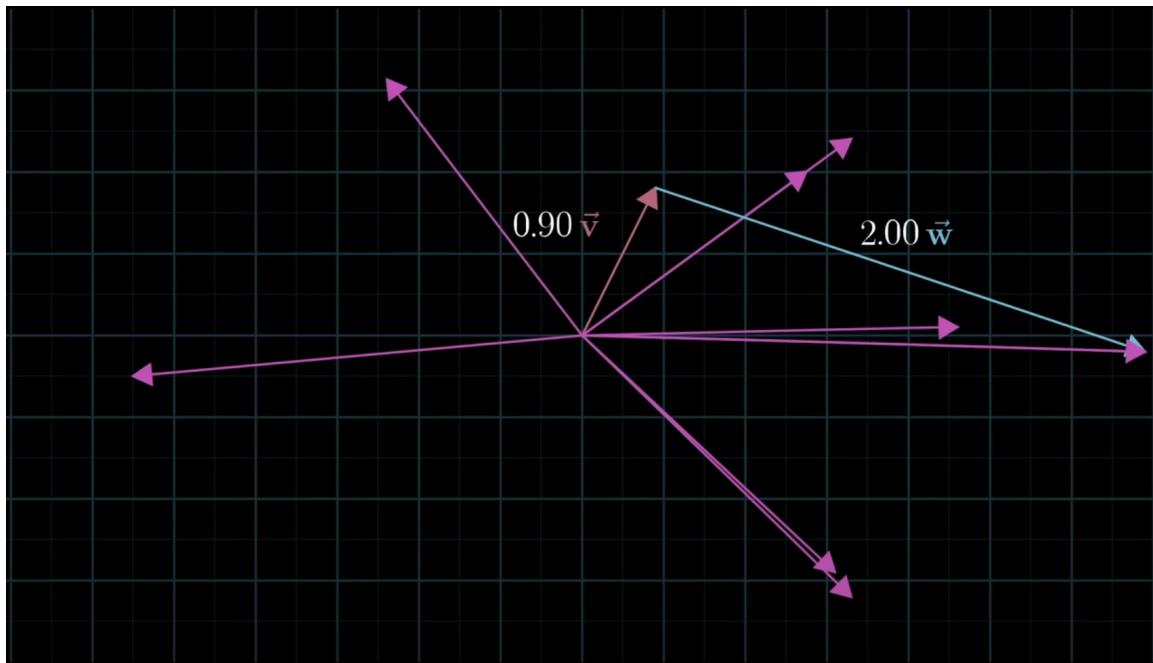


두 벡터를 스케일링 한 후 합한 것을 선형 결합 이라고 한다. 하나의 벡터를 고정하고 다른 벡터를 움직이면 직선상으로 움직인다. 그래서 선형 결합이라고 하는 것 아닐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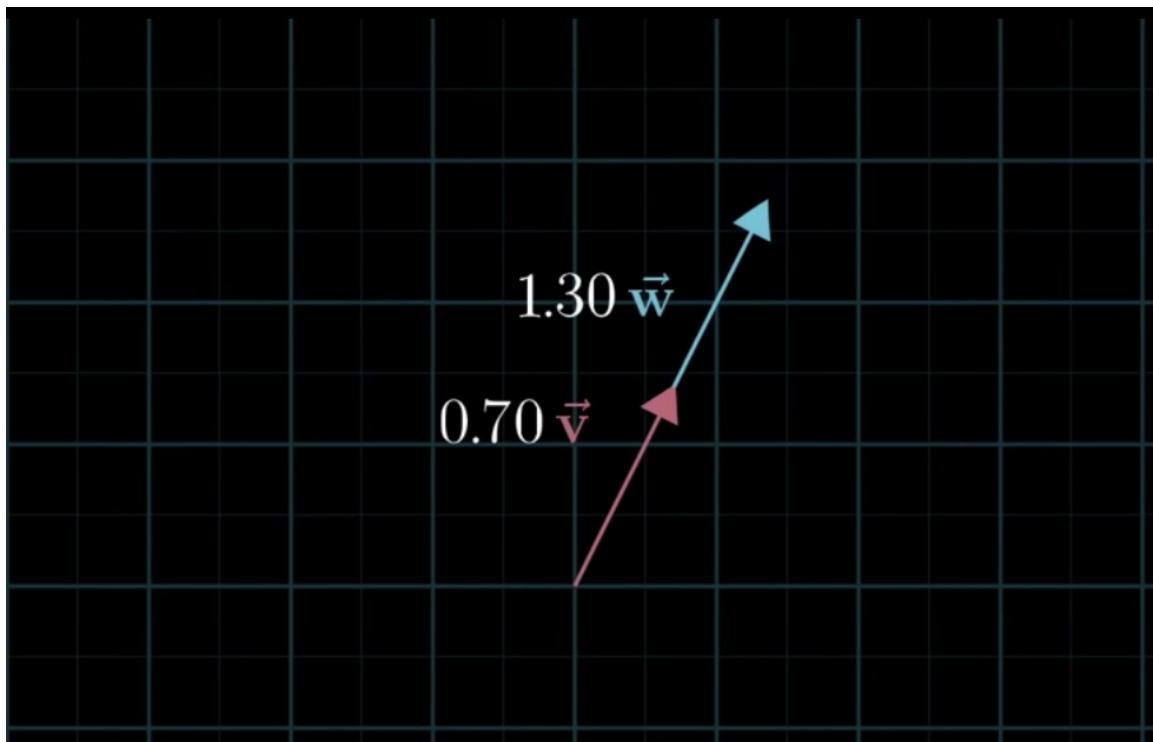
스팬(Span)

XY 좌표계에서 두 벡터 쌍으로 자유롭게 각각의 벡터의 스칼라를 스케일링한 후 더 한 경우 (선형 결합) 선형결크게 3가지 경우가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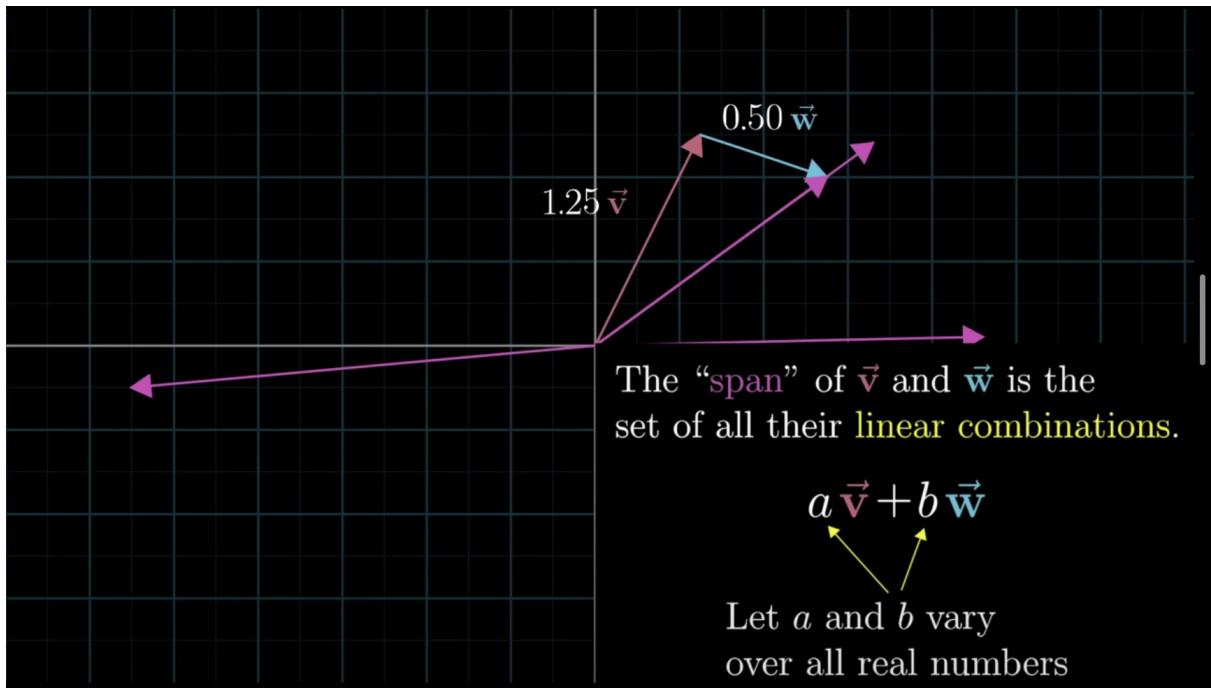
1. 대부분의 경우 : 좌표계의 모든 점에 도달 가능하다. 즉 모든 2차원 벡터를 만들어 낼 수 있다. \Leftarrow



2. 하나의 선 : 두 벡터의 선형 결합한 벡터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 경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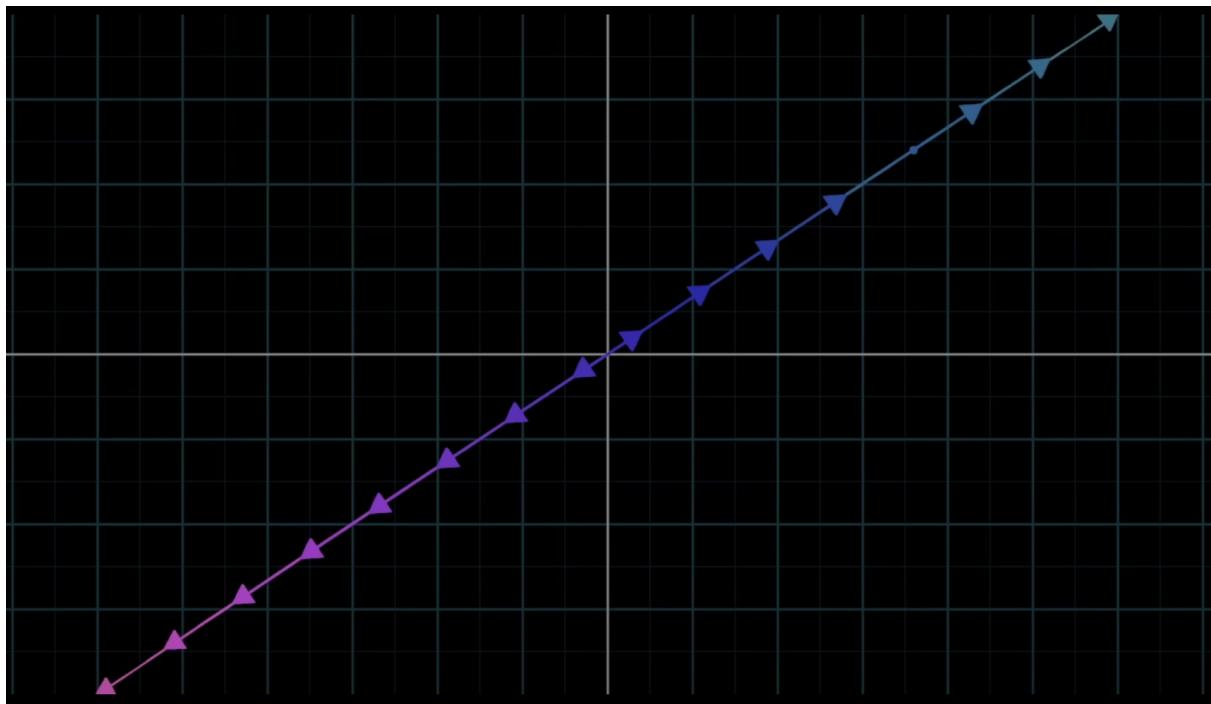
3. 원점 : 두 벡터가 모두 0인 경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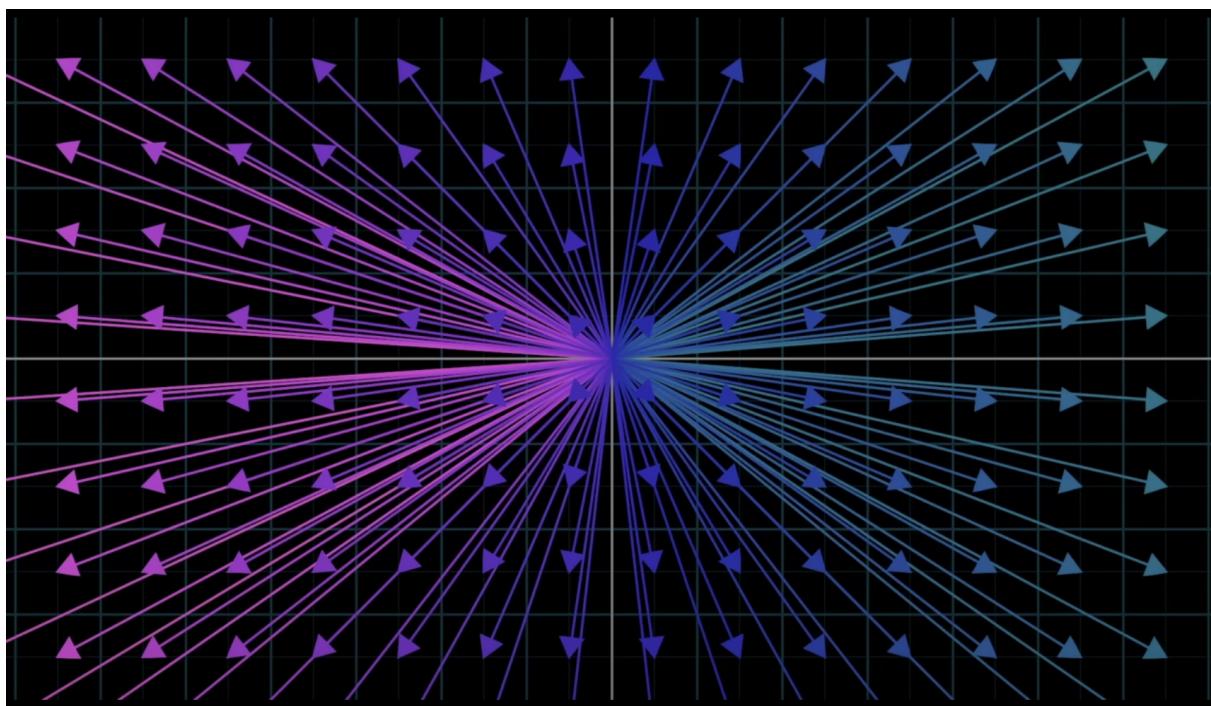
주어진 벡터 쌍(pair)의 선형 결합으로 도달 할 수 있는 벡터 쌍들을 Span이라고 한다. 2차원 벡터쌍의 span은 위에서 정리했듯이 대부분의 경우 2차원 공간 전체이나, 특정 선이 될 경우도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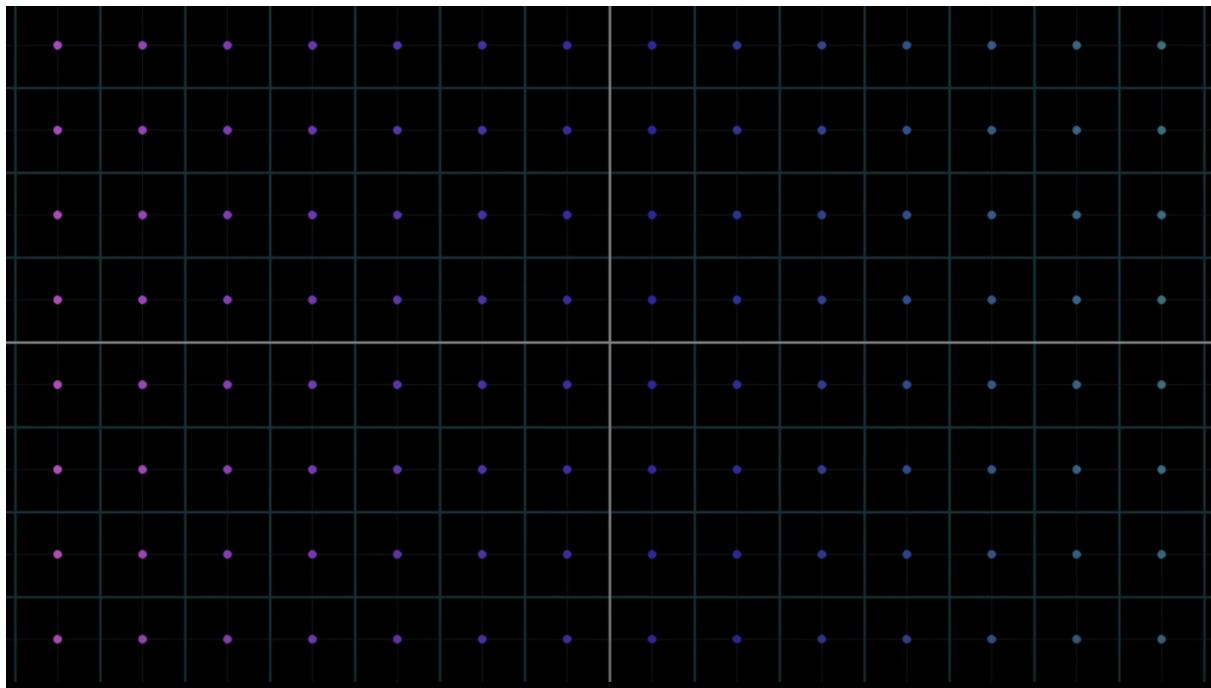
선형대수가 벡터합과 스칼라곱으로 이루어진다고 할때, 스팬은 합,곱 두 기본 연산을 이용해서 벡터 쌍이 도달 가능한 벡터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.

벡터 vs 점



하나의 벡터를 생각 할 때는 화살표 (좌표계에서는 직선)으로 생각하고,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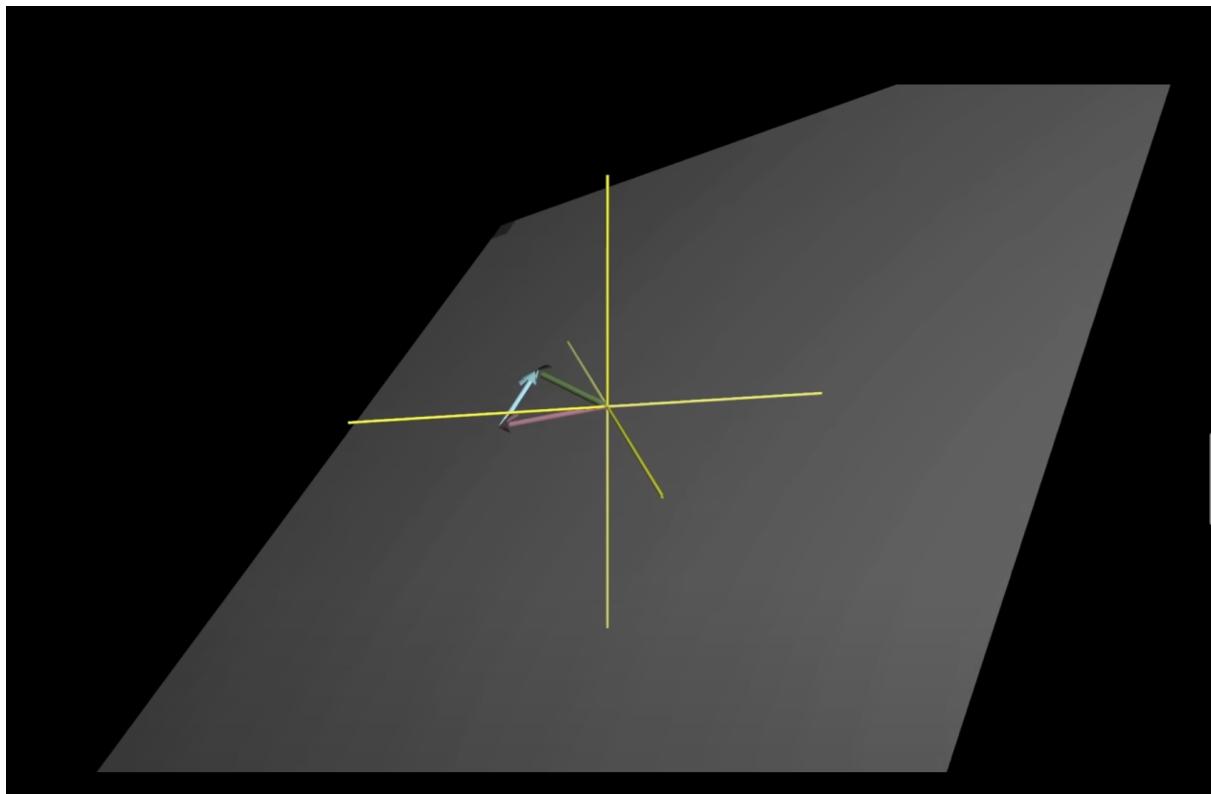


벡터의 집합을 다룰 때는 좌표계의 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.

그래서 스팬을 다시 생각하면 2차원 공간에서는 무한한 공간 그 자체가 되거나, 하나의 직선이 된다.

3차원 공간에서의 벡터

3차원 공간에서 두 벡터를 선형결합 한 스팬의 결과는 어떨까?



3차원 공간의 원점을 가로지르는 평평한 공간이 된다.

3차원에서 세 벡터를 선형결합한 스팬의 결과는 2차원때와 거의 유사하다. 즉 가능한 모든 선형 결합의 결과의 집합이다.

만약 추가된 벡터가 기존에 두 벡터가 만든 스팬 평면에 있다면, 아무리 선형 결합해도 기존 스팬이 유지되고 새로운 스팬이 만들어 지지 않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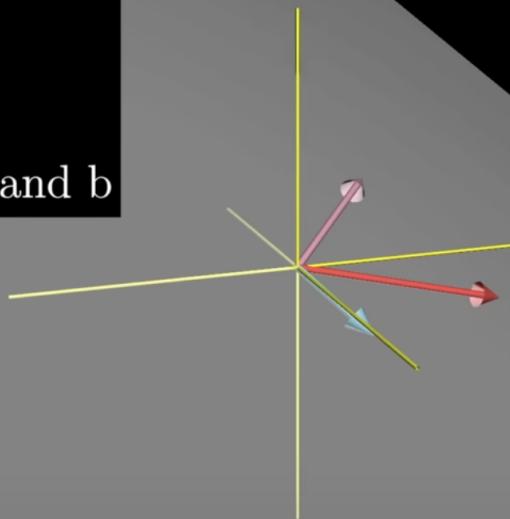
하지만 세 벡터가 다른 두 벡터의 스팬 평면에 있지 않다면 모든 3차원 벡터에 접근이 가능하다.

선형 종속(Linear Dependent) 과 선형 독립(Linear Independent)

“Linearly dependent”

$$\vec{u} = a\vec{v} + b\vec{w}$$

For some values of a and b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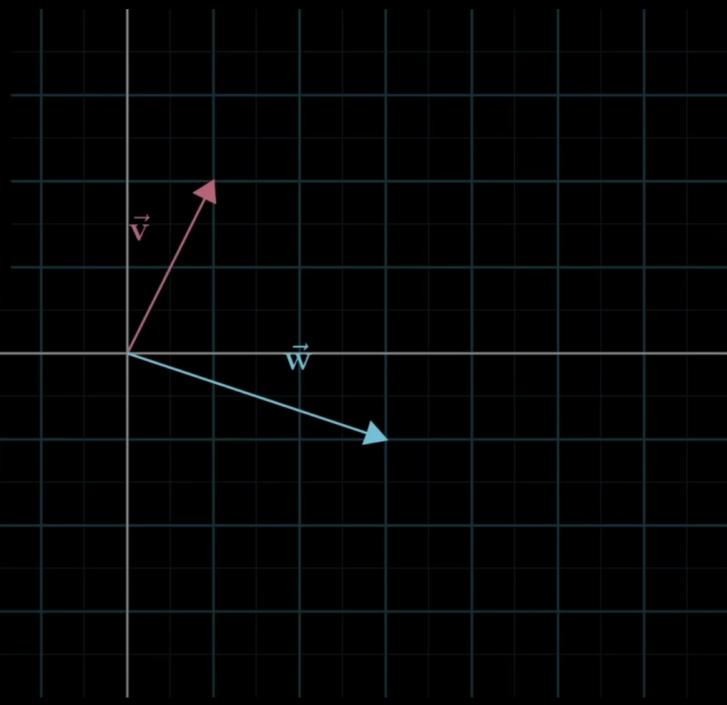
어떠한 벡터를 제거해도 스팬이 축소되지 않는 경우 선형 종속(linear dependent) 되어 있다고 한다.

세번째 벡터가 두 벡터의 스팬 평면에 놓여있거나, 두 벡터의 선형 결합이 이미 선인 경우 발생한다.

또는 벡터 집합 중 하나가 집합에 속한 다른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한 경우라고도 한다.

“Linearly independent”

$\vec{w} \neq a\vec{v}$
For all values of a



반대로 각각의 벡터가 기존 스팬에 다른 차원을 추가해주는게 가능하다면, 선형 독립적 (linear independent) 이라고 한다.

기저(Basis)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.

The basis of a vector space is a set of linearly independent vectors that span the full space.

즉 기저는 해당 공간에서 선형 독립적인 벡터들의 집합으로 span 하면 해당 공간이 된다는 것이다.